운영전

1. 유영, 수성궁에 놀러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다

안평대군[1]의 옛날 집인 수성궁은 한양성 서쪽 인왕산 밑에 있었다. 인왕산은 산세가 험하고도 아름다워 마치 용이 서려 있거나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산세 때문에 인왕산은 남쪽에는 사직단을 동쪽에는 경복궁을 거느리고 있었다. 인왕산의 줄기는 굽이쳐 내려오다가 수성궁이 있는 곳에 와서 문득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다. 그다지 높고 험하지는 않았지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거리에 흩어져 있는 가게들과 성 안의 집들은 하늘의 별처럼 헤아리기에 넉넉했다. 집들은 마치 베틀의 실오라기가 갈라진 것처럼 질서정연히 잘 늘어서 있었다.

수성궁은 동쪽을 바라보면 궁궐이 아득히 보이고 구름과 안개가 아침 저녁으로 허리춤에 걸려 한층 운치를 더해주는 곳이었다. 한양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곤 했다. 술꾼들은 노래 부르는 기생과 피리 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았고, 글쓰는 사람들은 꽃피는 삼월이나 단풍 드는 구월이 되면 거의 매일 거기서 놀았으며 시를 짓고 노느라고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청파동에 사는 유영이라는 선비도 수성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었다. 그런 곳이라면 한번 가서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옷은 해어지고[2] 얼굴빛은 병자처럼 파리해 혹시 갔다가는 다른 놀이꾼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오랫동안 주저하고 있었다.

어느 해 춘삼월, 유영은 보름이 지나서야 겨우 막걸리 한 병을 샀지만 함께 갈 하인 아이도 없고 친구나 아는 사람도 없었다. 혼자 술병을 차고 궁 안으로 들어가니 구경 온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저희들끼리 수군수군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영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다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후원으로 들어갔다. 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보니 전쟁이 막 지나간 뒤라 여기저기 무너진 집들이 보였다. 풀과 나무가 무성한 가운데 온전한 것은 동문 두어 칸뿐이었다.

유영은 걸음을 옮겨 한가운데 연못이 놓인 그윽하고도 깊숙한 서쪽 정원으로 들어갔다. 우거진 풀들의 그림자가 맑은 못 위에 떨어지고, 땅 위에 가득 떨어진 꽃잎은 사람의 발자취를 몰라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향기를 피워 올렸다. 유영은 바위 위에 앉아 옛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문득 울적하여 차고 온 술 한 병을 다 마시고는 크게 취하여 바위 위에 드러누워 돌을 베개 삼아 깜빡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 후 술이 깨서 고개를 들어보니 놀러온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흔적조차 희미했다. 동산에는 달이 아직 둥근데 안개는 버들가지를 포근히 감싸고 바람은 꽃잎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흘러들었다. 이상히 여긴 유영은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걸음을 멈추자 마주앉아 있던 어떤 젊은이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유영을 맞았다. 반가운 듯이 일어나 인사를 건네며 맞아 주었다. 유영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수재[3]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밤에 여기 나와 놀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길가는 도중에 수레를 세우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한 말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소리로 미인이 아이들을 부르자 시녀 둘이 숲 속에서 나왔다.

"오늘 저녁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고 또 뜻밖에 반가운 손님을 만났으니 이 밤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어서 가서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오고 아울러 붓과 벼루도 가져 오너라."

두 시녀는 잠시 후 돌아왔다. 오가는 시녀들의 모습은 마치 날아다니는 새와 같았다. 유리로 만든 술잔과 술병, 그리고 향기로운 술과 진기한 안주는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미인은 노래를 불러 술을 권했다.

깊고 깊은 궁 안에서 고운 님 이별하니
인연은 아직 남았는데 뵈올 길 전혀 없네
꽃 피는 봄날 애태우기 몇 번이었던가
밤마다 만나는 님 꿈일 뿐이라네
지난 일은 허물어져 티끌이 되었어도
부질없이 내 마음에 눈물짓게 하는구나

노래를 마치자 구슬 같은 눈물이 한숨과 섞여 얼굴을 뒤덮었다. 이상히 여긴 유영은 공손히 물었다.

"비록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일찍부터 글을 읽어 시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들어 보니 격조는 높으나 시상은 매우 슬프군요. 오늘 밤은 마침 달빛은 낮처럼 환하고 바람은 슬피 우니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술잔을 더해 가는데 아직 성도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영은 자신의 성명을 먼저 댔다.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성명을 들어보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젊은이가 대답했다.

"성명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연이 있어 그런 것인데 구태여 알려고 하십니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말을 하자면 사연이 좀 장황합니다."

젊은이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성은 김입니다. 열 살 때부터 시를 잘 짓고 글을 잘 써 학당에서 이름이 났었고 열 넷에 과거에 합격해 사람들이 모두 김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의 활달한 기운을 누르지 못하고 이 여인을 만나 마침내 불효한 자식이 되고 말았으니 이런 죄인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운영이고, 저 두 시녀의 이름은 녹주와 송옥인데 모두 옛날 안평대군의 궁녀였습니다."

"말만 꺼내고 그만두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안평대군 시절의 이야기와 진사가 상심하는 사연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겠습니까?"

김진사가 운영을 돌아보며 물었다.

"벌써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그때 일을 기억할 수 있겠는지요?"

"마음 속에 쌓인 원한을 하루라도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 터이니 혹시 빠지는 데가 있거든 채워 주세요."

운영은 옷깃을 여미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 안평대군과 수성궁의 궁녀들

세종대왕의 여덟 왕자 가운데서 안평대군이 가장 영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 매우 사랑하셨지요. 나이가 들자 많은 땅과 재물을 내려 주셔서 열셋에 자신의 궁을 지어 나와 살면서 이름을 수성궁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업에 힘을 쏟아 밤에는 독서에 전심하고 낮에는 시를 읊거나 글씨를 쓰면서 잠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이름난 문인과 재주 있는 선비들은 모두 대군을 찾아와 글

---

1)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 서예와 시문·그림·가야금 등에 능하고 특히 글씨에 뛰어나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2) 닳아서 떨어지다

3) 秀才.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이란 뜻으로 소년을 높여 부른 말.

과 일의 잘잘못을 물었고, 어떤 때는 새벽 닭이 울 때까지 토론이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대군은 특히 글씨가 뛰어나서 나라 안에서는 따라올 만한 이가 없었지요.

하루는 대군께서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비란 조용한 곳에 나아가 스스로를 갈고 닦은 후에야 비로소 학문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성 밖으로 나가면 산천이 조용하고 한적하여 학업을 닦기에 좋을 것이다."

그러고는 곧 정사 몇 칸을 짓고 거기에 게으름을 막는 집이란 뜻으로 비해당이란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 옆에는 좋은 시를 짓기로 맹세한다는 뜻으로 맹시단이라는 단도 쌓았지요. 때로 그 단 위에는 당대의 문장가들과 명필들이 모여들었는데 문장으로는 성삼문이 으뜸이었고 글씨로는 최홍효가 제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대군의 재주에는 미치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대군께서 술에 취해 궁녀들더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재주를 어찌 남자에게만 내렸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장가로 자처하는 사람이 많지만 빼어난 사람은 적다. 너희들도 힘써 공부하도록 해라."

그 후 대군께서는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궁녀 열을 뽑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답니다. 먼저 소학을 가르치고, 중용·대학·맹자·시경·서경·통감 등[4]을 차례로 가르치고 또 당나라 시 수백 편을 뽑아 가르치셨습니다. 대군의 생각대로 다섯 해가 지나자 우리 모두는 정말 나름의 학문을 이루었고 깨달은 바가 있었지요. 대군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가까이 두시고 시를 짓고 읊게 하셨답니다.

그 열 명의 이름은 소옥·부용·비경·비취·옥녀·금련·은섬·자란·보련·운영이었는데 운영이 바로 접니다. 대군은 열 궁녀 모두를 사랑하셔서 늘 궁 안에만 있게 하고 바깥 사람과는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날마다 문사들이 찾아와 드나들었지만 우리는 한번도 만난 일이 없었지요. 바깥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해서였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명령을 내리곤 하셨지요.

"궁녀가 한번이라도 궁 문을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다. 또 외부인으로 궁녀의 이름을 아는 자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느 날인가는 대군께서 바깥에서 돌아와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몇몇 문인들과 술을 마시는데 신비로운 푸른 연기가 궁중의 나무에서 일어나 성의 담장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읊고 손님들에게 돌아가며 시를 짓도록 했으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이 순서대로 시를 지어 올려 보거라."

그래서 소옥이 먼저 올리고 차례대로 시를 올렸지요.

푸른 연기는 가늘기 비단 같은데
바람 따라 문으로 들어오네
짙어지는 듯 옅어지니
황혼이 오는 것도 미처 몰랐네

작은 은행나무는 우거지기 어려운데
홀로 선 대나무는 저마다 푸르구나
가벼운 그늘은 잠시 무거울 뿐
해가 지면 또다시 황혼이 온다네

차례대로 저도 한 수를 지어 올렸지요.

멀리 바라보니 푸른 연기는 가늘기도 한데
미인은 문득 비단 짜기를 멈추네
바람을 쏘이며 홀로 슬퍼하니
생각은 하늘 날아 무산[5]에 떨어지네

대군께서는 일일이 음미하고는 시들이 훌륭하다고 크게 놀라셨지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살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비취의 시는 시경의 시들과 비길 만하고 옥녀의 시는 은은한 뒷맛이 있다. 이 두 편을 으뜸으로 삼아야겠다. 나머지 시들도 다 맑고 아름다운데 다만 운영의 시만은 외로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뜻이 있구나.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캐물어야 하겠지만 네 재주를 사랑하기에 잠시 그냥 덮어 두겠노라."

저는 바로 뜰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시를 짓는 동안 우연히 나온 것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대군의 의심을 샀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 되었다."

저를 일어나라 하시고는 우리들에게 비단 열 필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대군은 한번도 저에게 마음을 둔 일이 없었지만 다른 궁녀들은 모두 대군의 뜻이 저에게 있는 줄 알고 있었지요.

동쪽 방으로 물러나온 우리들은 촛불 아래서 옛 궁녀들의 시를 돌려 읽으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저만은 병풍에 기댄 채 진흙 인형처럼 수심에 잠겨 있었지요. 그런 저를 보고 소옥이 말을 건넸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군의 의심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대군과 함께 누린 비단 이불 속의 즐거움을 혼자 기뻐하느라고 그러느냐? 네 속을 도무지 모르겠구나."

"그런 게 아니란다. 시 한 수를 생각하다가 좋은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 그런 것뿐이란다."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내 한번 시험해 볼 테니 저 창 밖의 포도를 제목으로 시를 지어 보아라."

은섬이 재촉하며 하는 말이었지요. 저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를 지어 냈습니다.

구불구불 넝쿨은 용이 움직이는 듯
푸른 잎 그늘 이뤄 그윽하구나
넝쿨은 팔을 뻗어 난간을 감고
비구름 몰아 타고 하늘을 오른다

소옥이 시를 보더니 절까지 하면서 칭찬을 늘어 놓았지요.

"눈깜짝할 사이에 이런 시를 지어 내니 참으로 다시 만나기 어려운 재주로구나. 너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말은 조심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지나친 칭찬을 하느냐? 그래도 표현이 은근하고 날아오르는 듯한 맛이 있다면 있구나."

자란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저를 향한 의심이 풀린 셈이었지만 그래도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문 밖에서 요란한 수레 소리가 들리더니 손님이 왔다고 문지기가 고했습니다. 모두 당대의 문사들이었습니다. 대군은 동쪽 누각에 손님들을 모시고는 저희들이 지은 시를 보여주었지요.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옛 당나라의 아름다운 시를 오늘에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보물들을 얻으셨습니까?"

"하인 녀석이 우연히 길에서 주워온 것인데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어느 양반집 재주 있는 여인의 손에서 나왔을 거요."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4) 조선시대에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던 교과서.

5) 巫山.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으로 초나라 양왕이 꿈속에서 무산의 선녀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는 전설이 어려 있는 산.

"이 시들을 보니 시가 맑고 담긴 뜻이 높아 속세의 자취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시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깊은 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격조의 높낮이가 있으나 닦은 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이 궁중에 반드시 열 명의 선녀가 숨어 있을 것이니 숨기지 마시고 한번 보여 주시지요."

"누가 근보[6]더러 시를 심사하라고 했는가. 궁중에 어찌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의심도 심하군."

대군은 속으로는 탄복하면서도 겉으로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창 틈으로 방 안의 대화를 가만히 엿듣고 있었는데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날 밤 절친한 자란이가 성의를 다해 물었습니다.

"시집가고픈 마음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니. 네 마음 속에 담긴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네 얼굴이 날로 수척해 가니 안타깝단다. 나에게 숨김 없이 말 좀 해주지 않으련?"

저는 자란의 성의와 우정에 감동하여 마음 속에만 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3. 손가락에 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

지난 가을 국화가 피고 단풍이 질 무렵이었지. 대군이 서당에 홀로 앉아 시를 쓰고 있는데 하인 아이가 들어와 고하더구나.

"나이 어린 선비가 김진사라고 하면서 뵙겠다고 하옵니다."

"김진사가 왔구나!"

대군은 환한 웃음을 보이시면서 손님을 맞았는데 베옷에 가죽 허리띠를 띤 선비더구나. 빠른 걸음으로 섬돌에 오르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펴는 것 같더구나. 얼굴과 행동은 신선과 같았지.

"오랫동안 존명을 들었사온데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사옵니다."

"김진사의 명성은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받게 되니 나로서는 크나큰 영광이오."

진사가 들어올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대군은 진사가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착하다고 여겨 우리를 피하게 하지는 않으셨지. 대군이 진사에게 말씀하셨지.

"가을 경치가 매우 좋구료. 시 한 수를 지어 이 집이 빛나도록 해주시오."

진사는 겸손히 사양하며 말하더라.

"헛된 이름이 사실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시를 알겠습니까."

대군은 재촉하지 않고 금련에게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용에게는 거문고를 타게 하고 보련에게는 단소를 불게 하고, 나에게는 벼루를 갈게 하셨는데 그때 내 나이 열일곱이었단다. 진사를 살풋 보고는 정신이 어지럽고 가슴이 울렁거렸지. 진사님도 나를 자주 돌아보면서 웃음을 머금으시더구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대군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셨지.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기다렸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구슬 같은 목소리를 그리 숨겨 이 집을 쓸쓸하게 하시오?"

드디어 진사님이 붓을 들어 시 한 수를 쓰셨지.

기러기 남으로 날으니
궁 안에 가을빛이 깊었어라
물이 차니 연꽃은 구슬 되어 꺾이고
서리 무거워 국화는 금빛 드리우네
비단 자리에는 발그레 얼굴 고운 미녀들
옥 같은 거문고줄에 흰 눈이 나리네
그윽한 한 말 술에
몸 가누기 어려워라

대군은 여러 차례 음미하다가 놀라며 말씀하셨지.

"참으로 천하에 둘도 없는 시재요. 어찌 우리가 이리도 늦게 만났던가요."

우리들도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한 목소리로 말했었지.

"어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신선이 학을 타고 속세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군은 술잔을 건네며 물었지.

"옛 시인들 가운데 누가 으뜸이 되겠는가?"

"시인마다 다 자기의 특색이 있어서 쉽게 우열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군은 그 특색을 말해 보라며 술잔을 또 건넸지. 진사님은 당나라의 이백과 두보를 비롯해 많은 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구나. 시인들에 대한 견해가 달라 두 분 사이에 논쟁도 약간 있었지. 이야기는 그렇게 끝없이 이어졌지. 그래도 우리는 지루한 줄을 몰랐엇지. 그날 대군은 시인들에 대한 담소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진사님께 시 한 수를 부탁했지.

연기 흩어진 금빛 연못에 이슬 기운 차디찬데
푸른 하늘은 물결처럼 맑아 밤은 이리 길기도 하구나
잔잔한 바람은 뜻이 있어 주렴을 걷고
흰 달은 정이 많아 작은 방에 들어오네

시를 음미한 후 대군은 진사의 손을 잡으며

"진사는 이 세상의 선비가 아니오. 나로서는 시의 높고 낮음을 말할 수가 없소이다. 하늘이 그대를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요."

이렇게 좋아하시더구나. 그런데 진사가 시를 쓰느라 붓을 휘날릴 때 먹물 한 방울이 내 손가락에 잘못 떨어졌단다. 내가 그것이 영광스러워 씻지 않고 두었더니 사방에 앉아 있던 궁녀들이 다들 빙그레 웃더군. 밤이 깊어지니 대군은 술에 취해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 취했다. 이제 물러가 쉬거라. 그러나 '내일 아침 뜻 있거든 거문고 안고 오소'라는 싯구는 잊지들 말아라."

이튿날 대군은 진사의 시를 다시 펼쳐 보면서 말씀하셨지.

"김진사의 시는 근보와 견줄 만하군. 허나 그 맑은 시의 맛은 근보보다 낫겠는걸."

나는 김진사님을 본 후로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고 먹어도 밥맛이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랐었지. 매일 멍하게 창 밖을 보거나 작은 소리에도 혹시나 하여 마음이 두근두근 놀라곤 했지.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자란에게 서운한 듯 물었습니다.

"너는 그걸 모르고 있었니?"

"미안해. 난 까맣게 잊고 있었단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마치 술이 깬 것처럼 정신이 맑아졌단다. 얼마나 마음이 고생스러웠겠니."

4. 운영과 김진사, 상사병에 걸리다

그 후로 대군은 자주 진사와 만났지만 다시는 저희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문 틈으로 엿보곤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운 종이에다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베옷 입고 가죽띠를 두른 선비
옥 같은 얼굴은 신선과 같아라

6) 성삼문의 호

날마다 주렴 사이 건너다 보는데
어찌하여 달빛 아래 인연이 없는가
얼굴 씻으니 눈물은 물이 되고
거문고 줄 고르니 원한은 줄에서 오네
끝없는 원망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머리 들어 호올로 하늘에 하소연하네

시와 금비녀를 잘 싸서 진사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좋은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 밤에 대군은 술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대군이 보여준 시를 읽어본 손님들은 모두 진사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들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군은 곧 사람과 말을 보내 진사를 청했습니다.

얼마 후 진사님이 오셨는데 얼굴은 파리하고 몸은 수척해져서 옛날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요. 대군은 크게 걱정하며 인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사는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못가를 거닐면서 시를 읊느라고 파리해졌는가?"

그 소리에 손님들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저같이 천한 선비가 뜻밖에 대군의 사랑을 받다 보니 복이 지나쳐 화를 낳았습니다. 병마에 붙잡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 의지해 있다가 대군께서 이렇게 다시 불러 주셔서 겨우 찾아뵈었습니다."

진사의 말을 들은 손님들은 모두 웃음을 거두고 무릎을 가다듬으며 예를 표시하더군요. 나이 어린 진사님이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저하고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은 저마다 한껏 취했습니다. 저는 벽을 헐어 구멍을 조금 내고 들여다보았지요. 진사님도 제 뜻을 알고 구석을 향해 앉더군요. 제가 편지를 구멍으로 던졌더니 얼른 주워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뜯어 시와 사연을 읽어 보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도무지 편지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리운 마음은 전보다 더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바로 답장을 쓴 다음 보내려고 했지만 전할 길이 없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은 슬픔과 탄식뿐이었답니다.

5. 김진사, 무녀를 찾아가다

하루는 동문 밖에 사는 무녀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무녀는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수성궁에 드나들면서 대군의 사랑과 믿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그 무녀를 찾아갔답니다. 그 무녀는 나이가 서른도 되지 않은 과부로 얼굴도 예뻤지만 남자를 밝히는 것으로도 소문이 난 여자였습니다. 진사가 들어오는 것을 본 무녀는 좋은 술과 안주를 급히 장만하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술잔을 권했습니다. 진사는 잔을 잡기는 했으나 마시지는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갔지만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또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무녀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진사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 속으로 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연일 왔다가는 말도 없이 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무녀는 나이 어린 선비가 분명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다시 오면 은근히 정으로 유혹해 붙들어 놓고 밤을 지새우며 같이 자리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목욕 후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꽃 같은 비단 이부자리를 깔아 놓고는 계집종에게 망을 보게 했습니다. 진사는 다시 찾아갔다가 무녀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녀가 은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뵙게 되었을까요?"

진사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으나 뜻이 없어 불편한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더니 무녀가 다시 묻더랍니다.

"과부의 집에 젊은 남자가 어찌 이리 자주 오시는지요?"

"소문에 점이 신통하다던데 내가 찾아온 이유를 어찌 아직 모르시오?"

그러자 무녀는 비로소 정신을 차려 신령 앞에 나가 절을 하고 방울을 흔들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더랍니다.

"당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로군. 이루기 어려운 일을 이루려고 하니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삼 년 안에 저 세상 사람이 되겠소."

그 말을 들은 진사는 울며 매달렸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짐작하고 있소. 하지만 마음 속에 맺힌 이 괴로움은 무슨 약으로도 풀 수가 없다오. 만일 당신의 도움으로 이 편지를 전하게 된다면 죽어도 영광스럽겠소."

"제사 지낼 때 가끔 드나들기는 했지만 저같이 천한 무녀로서는 부르시는 일이 없으면 감히 수성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사님을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녀도 진사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인 모양이었습니다. 진사는 품속에서 밀봉한 편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조심하오. 잘못 전했다가는 여러 사람의 목숨이 떨어질 거요."

다음 날 무녀는 편지를 품고 수성궁에 들어갔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지요. 무녀는 궁 안에 나쁜 기운이 있어 쫓으려고 왔다고 둘러대고는 저에게 편지를 건네 주었지요. 방으로 달려와 문을 걸어 잠그고 뜯어 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한번 눈길로 인연을 맺은 후 마음이 들뜨고 넋이 나가 날마다 성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요. 벽 사이로 전해 준 사연을 받아들고 마음이 떨려 다 펼치기도 전에 가슴이 메이고 절반도 못 읽어 눈물이 글자를 적셔 사연을 다 읽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를 어찌하리이까. 그 후로는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어도 음식이 목을 넘어가질 않아 나날이 병은 깊어가나 무슨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저승이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직 소원은 그대를 한번 보는 것, 하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생전에 이 한을 풀 수만 있다면 제 몸을 부수고 뼈를 갈아서라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편지를 쓰다가도 이리 서러워 목이 메이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하오리까. 예도 갖추지 못하고 서둘러 쓰나이다.

편지 사연 뒤에는 시 한 수도 적혀 있었습니다.

누각은 깊고 깊어 저녁 문 닫혔는데
나무 그늘 구름 그림자 다 희미하여라
꽃잎은 물에 떠 실개울을 흘러가고
어린 제비는 흙을 물고 처마 끝 찾아가네

베개에 기대어도 이룰 수 없는 나비의 꿈
눈을 돌려도 남쪽 하늘엔 흔적 없는 외기러기
눈 앞의 임의 얼굴은 어찌 이리 말이 없는가
푸른 숲 꾀꼬리 울음에 눈물은 옷깃을 적시네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나자 갑자기 주변의 온갖 소리가 끊기었습니다. 기가 막혀 입으로는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 눈물이 다하자 피가 뒤를 이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병풍 뒤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후로는 잠깐이라도 진사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시는 시쓴 이의 성품과 감정에서 우

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하루는 대군이 비취를 불렀습니다.

"열 명이 한 방에 함께 있으니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은 새로 지은 서궁으로 옮기도록 해라."

그날로 저는 자란·은섬·옥녀·비취와 같이 서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옥녀가 말했습니다.

"그윽한 꽃, 가녀린 풀, 흐르는 물, 아름다운 수풀이 포근히 감싸고 있어 책읽기에 참 훌륭한 곳이로구나."

"산사람도 중도 아니면서 이렇게 깊은 궁에 갇히었으니 이야말로 장신궁[7]과 다를 바 없구나."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우울한 얼굴로 탄식하지 않는 궁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궁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답장을 써서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사도 정성껏 무녀를 섬기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무녀는 더 이상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아마도 진사의 뜻이 자기한테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겨 그랬을 것입니다.

6. 궁녀들의 말다툼과 자란의 말솜씨

어느 날 저녁 자란이 가만히 말을 건넸습니다.

"궁 안 사람들이 해마다 한가위 때쯤이면 탕춘대 아래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술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있단다. 올해는 소격서동에서 한다고 하니 오가는 사이에 그 무녀를 찾아가 보면 어떨까?"

다른 길이 없었던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루를 한 해처럼 한가위를 기다리고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취가 우리말을 엿듣고 모르는 체하며 나중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올 때는 얼굴빛이 배꽃 같아서 화장을 안 해도 아리땁더니 무슨 일로 요사이는 나날이 얼굴빛이 시든 꽃처럼 변해 가느냐?"

"본래 몸이 허약해서 여름이면 더워서 마르는 병이 있단다. 오동잎이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나아진단다."

제 대답을 듣고 비취는 저를 놀리는 시를 한 편 읊어 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몹시 부끄러웠답니다.

그럭저럭 두어 달이 지나가고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은 옷깃 사이에서 일어나고 줄기가 가는 국화는 황금빛을 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풀 숲의 벌레는 목소리를 가다듬었고 흰 달은 더욱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다른 궁녀들에게 사연을 털어 놓으면서 사정을 했지요. 이미 서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남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 다오."

계절이 더욱 깊어져 기러기는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풀잎에는 구슬 같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맑은 시냇물에 빨래할 때가 다시 찾아온 것이지요. 궁녀들은 머리를 맞대고 날짜와 장소를 정하려고 했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과 흰 돌은 탕춘대 밑보다 나은 데가 없단다."

"소격서동의 물과 돌이 우리 궁에서 멀지 않은데 왜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을 찾아간단 말이냐?"

남궁과 서궁 궁녀들 사이의 말싸움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서궁의 사연을 모르니 당연했던 것이지요. 끝내 남궁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 결국은 아무런 결정도 짓지 못하고 말았지요.

그날 밤에 자란이 또 꾀를 냈습니다.

"남궁의 다섯 사람 중에 소옥이가 주동자니까 소옥이 마음만 돌리면 될 거야. 나한테 생각이 있어. 기다려들 봐."

그러고는 등불을 앞세우고 남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금련이 먼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우리가 남서로 서로 갈라진 후 진나라와 초나라처럼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렇게 뜻밖에 귀한 몸이 찾아오니 정말 반갑고 고맙구나."

옆에 있던 소옥이 빈정대듯이 말을 던졌다.

"고마울 게 뭐 있니? 얘는 우릴 설득하러 온 유세꾼이란다."

자란이 옷깃을 가다듬고 정색을 하며 소옥에게 말했습니다.

"넌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모양이구나. 유세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서궁 사람들이 다 소격서동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 혼자 고집을 부린 것 때문에 네가 이 밤중에 찾아왔을 테니 유세꾼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하고 싶은 말이나 해 보거라."

"사실은 서궁 사람들 다섯 중에 소격서로 가자는 것은 나 혼자뿐이란다."

"그래, 그건 또 무슨 까닭이냐?"

"내가 들어 보니 소격서동은 바로 옛날 옥황상제께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달리는 삼청동이라고도 부른단다. 아마도 우리 열 명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삼청궁에서 선녀로 살다가 실수로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왔을 것이다. 속세에 쫓겨온 이상 인간 세상 어디서 살든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깊고 깊은 궁궐 속에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갇히게 되었으니, 나는 꾀꼬리 울음만 들어도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두고도 한숨을 짓고 쌍쌍이 나는 제비, 마주앉아 졸고 있는 산비둘기만 보아도 외로워진단다. 들의 풀잎도 저마다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데 우리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도 커서 적막한 궁궐 속에 숨어 청춘을 썩혀야 한단 말이냐? 인생이란 한번 늙고 나면 다시는 젊어지지 않는 것이니 생각만 해도 슬픔이 가슴을 비집고 흘러내린단다. 이제 일년에 한번뿐인 이런 좋은 때를 맞아 맑은 시내에 가 몸을 깨끗이 하고 옥황상제를 모신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백 번이라도 절을 하고 손을 모아 빌고 빌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니? 그런 뜻으로 내가 소격서동을 고집한 것이지 여기에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니? 우리 열 명은 자매처럼 정을 나누며 지내왔는데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해서야 쓰겠니? 내가 까닭 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란다."

시비를 걸려던 소옥은 오히려 자란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치에 밝지 못해 네 생각에 못 미쳤구나. 내가 서궁 사람들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그 근처에는 무뢰한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서 혹시나 욕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란다. 이제 네 고귀한 뜻을 알았으니 이후로는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뜻을 따를 것이며 강이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를 따르리라."

"무릇 일을 결정하는 데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군께 알리지도 않고 우리끼리 비밀스레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낮에 다툰 것을 밤도 깊기 전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구나. 게다가 가을에는 옥같이 맑은 물이 없는 곳이 없거늘 제단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소격서동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구나. 궁 안 비해당 앞을 흐르는 물도 맑고 작년에도 거기서 빨래를 했는데 왜 새삼스레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부용이 두 사람에게 불만을 보이며 하는 말이었지요. 보련 또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다들 사리가 분명하고 똑똑한 궁녀들이었으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하는 바늘과 같은 것이다. 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화도 생기고 복도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예로부터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이라고 했다. 내가 옆에서 너희들의 대화를 듣고 있

7) 중국 한나라의 태후가 과부가 되어 홀로 살았던 궁궐

자니 자란의 말에는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고 소옥의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고 부용의 말은 말을 꾸미는 데만 힘을 쓰고 있으니 어느 것도 내 뜻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번 행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옆에 금련이 있다가 끼어들었다.

"오늘 저녁 의논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알아보지.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금련은 말끝을 흐리며 주역을 펴놓고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한 괘를 얻어 괘풀이를 하였지요.

"내일 운영은 반드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운영은 얼굴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 대군께서 오랫동안 운영에게 마음을 기울였으나 운영이 대군의 부인을 생각하여 죽음으로 거역하고 있고, 대군 또한 운영이 자칫 자기 몸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운영이 쓸쓸한 곳을 버리고 화려한 곳으로 가려 하니 장안의 활달한 소년선비들이 그 미모를 보고는 넋을 잃고 미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요 비록 가까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눈짓을 보낼 것이니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요 대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전에 대군께서 명령하시기를 궁녀가 문을 나가거나 바깥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면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 나 또한 이런 행차에는 따라 갈 수가 없다."

자란은 일이 그르친 것을 알고 상심하여 어두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요. 그런데 비경이 울면서 허리를 안고 억지로 붙잡아 앉혔지요. 그러고는 앵무 술잔에 술을 따라 자꾸 권하였지요. 다른 궁녀들도 다들 술잔을 잡았지요. 서로 다투기는 했어도 가슴 저편에 숨은 슬픔이 서로를 전염시켰던 것이겠지요. 한참을 술잔만 기울이다가 금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은 조용히 마쳤으면 했는데 비경이 우니 나도 정말 괴롭구나."

비경이 그 말을 받았지요.

"전에 남궁에 함께 있을 때 운영과 더불어 생사와 영욕을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는 곳이 달라졌다고 잊을 수 있겠니. 며칠 전 대군 앞에 나가 문안을 드릴 때 운영을 보니 손은 말라 더 가늘어졌고 얼굴은 더 핼쓱해졌으며 목소리는 가늘어져 들릴락말락 하더구나. 일어나 절을 하다가는 힘없이 넘어져 내가 붙들어 일으키지 않았겠니. 나중에 위로의 말을 하였더니 '불행하게도 병을 얻어 목숨을 기약할 수 없으니 내 천한 목숨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겠지만 아홉 벗들의 나날이 빛나는 아름다운 시편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하도 처절해서, 다시금 그 말이 떠올라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이란다. 죽음에 임한 사람을 데리고 소원을 빌러 가는 것도 난감한 일이지만 만약 이 계획이 이뤄지지 못해서 운영이 저승에 가서도 눈을 감지 못하게 된다면 더더욱 곤란한 일이 될 것이요, 그 원한이 다 남궁으로 돌아올 것이니, 아 이를 어찌 하면 좋으랴!"

소옥이 결심한 듯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겠다고 했고 다른 몇 사람도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어찌 중도에 그만 두겠어. 나는 두말 않고 운영이를 위해 죽으리라."

"따르는 사람이 반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반이니 일은 다 틀렸다."

자란은 짐짓 실망한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자란은 방문을 열고 나가다가 말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눈치가 빠른 자란은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뜻을 같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한 입으로 두 말 하기가 부끄러워 망설이는 표정들을 재빨리 읽었지요. 돌아서서 자란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세상 일에는 바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바르지 못한 방법이라도 맞게만 쓰면 그것도 결국 바른 길이 되는 것이다. 어찌 너희들은 융통성도 없이 먼저 한 말만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 말에 모든 궁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군요.

"옛날에는 소진이란 사람이 말로 여섯 나라를 뭉치게 하더니[8] 오늘은 자란이 우리 다섯 사람을 설득했구나. 과연 훌륭한 말솜씨로구나!"

비경이 칭찬을 하자 자란은 웃음을 머금으며 농담을 던졌지요.

"그래서 소진은 여섯 나라의 재상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대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여섯 나라의 동맹은 여섯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금련의 재치 있는 말대꾸에 다들 얼굴을 마주보며 오랜만에 크게 웃었지요.

"남궁 사람들이 다들 착해서 죽어가는 운영의 목숨을 다시 살렸으니 어찌 사례가 없으리."

다시 일어나 절을 하면서 자란은 다시 한 번 말다짐을 두었습니다.

"다섯 사람 모두 따르기로 한 거야. 위에서는 하늘이 보고 아래서는 땅이 보고 촛불이 보고 귀신이 보았으니 내일 가서 다른 말이야 없겠지?"

모두 일어나 문 밖까지 따라나가 전송을 했습니다.

자란이 돌아와 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큰 절을 올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살려준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맹세코 이 은혜를 갚을 게다."

7. 운영과 김진사, 몰래 만나다

다음 날 아침 궁녀들이 하나 둘 모여 들었습니다. 다들 모이자 소옥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물은 차니 빨래할 때가 되었구나. 오늘 소격서동에다가 휘장을 치는 것에 좋겠다."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와 서궁으로 돌아가 흰 비단 치마에 가슴 가득 고여 있던 슬픔과 한을 써내려 갔습니다. 고이 접어 품에 품고는 자란이와 같이 일부러 멀찍이 뒤떨어져 출발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부에게 다른 길을 일렀습니다.

"동문 바깥에 있는 무녀가 아주 신통하다고 하니 그 집에 먼저 들러 내 병에 대해 물어보고 가겠다. 먼저 그리 가자."

마부는 그 말을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무녀 집에 이르러 무녀에게 좋은 말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애걸복걸했던 것이지요.

"김진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찾아온 것뿐입니다. 도와 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김진사님께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제 간절한 부탁을 무녀도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녀의 연락을 받은 진사는 엎어질 듯 달려 왔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 둘은 할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가슴 가득 고였던 그리움의 한이 눈물로 넘쳐 흘렀던 것이지요. 저는 갈 길이 있어 편지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 때 꼭 돌아오겠어요. 낭군님은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저는 다시 말을 타고 급히 일행을 뒤따라 갔고 진사는 남아 제 편지를 뜯었습니다. 저는 편지에다 이렇게 적었지요.

일전에 선녀 같은 무녀가 전해 준 편지 속에 가득 담긴 것은 옥구슬 같은 낭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음으로 읽고 또 읽어 보니 슬픔과 기쁨이 차례도 지키지 않고 밀려들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전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비밀이 샐까봐 두려워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갈까 했

8)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소진(蘇秦)이 외교술을 발휘하여, 약한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 강한 진(秦)나라에 대항하도록 했던 일을 두고 한 말. 합종연횡(合縱蓮횡)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음.

지만 날개가 없어 궁궐의 담장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으로 애가 끊어지고 넋은 사라져 이제 다만 죽을 날을 기다릴 뿐이옵니다. 죽기 전에 편지로나마 제 평생의 슬픔을 퍼담아 보려 합니다. 낭군께서는 마음에 새겨 두고 두고 기억해 주옵소서.

제 고향은 남쪽이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여러 자녀들 가운데서도 유독 사랑하셔서 무엇이든 제 뜻대로 해주셨습니다. 나가 놀 때에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려고 하는 대로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나무 매화나무 귤나무 그늘 속을 뛰어다니며 아름다운 산과 들의 풍경을 마음껏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재미있었던 시절을 어떻게 일일이 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은 저에게 사람의 행실과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을 읽도록 도와 주셨으며 시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열 셋에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궁중에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굴도 씻지 않고 옷도 더럽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추하게 여기도록 뜰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궁녀가 보고 '연꽃 한 줄기가 뜰 가운데서 피어올랐다'고 했습니다. 대군의 부인께서 특히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대군도 각별히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궁 안의 다른 사람들도 저를 핏줄처럼 아껴 주었습니다.

그 후 학문에 열성을 바쳐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시의 맛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궁으로 옮겨서는 시에만 전념해서인지 시를 보는 눈이 깊어져서 다른 문인들이 지은 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없게 되었으며 시의 잘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름을 널리 떨쳤을 것이지만 박명한 여자로 태어나서 깊은 궁궐에 갇혀 시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스러운 따름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누가 다시 알아 주겠습니까? 수를 놓다가도 힘없이 집어던지고 비단을 짜다가도 북을 집어던지곤 하였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수도 없이 비단 휘장을 찢고 옥비녀를 꺾어 버리곤 했습니다. 술이라도 한 잔 하는 날이면 이리저리 산보를 하다가도 미친 사람처럼 섬돌 사이에 핀 꽃을 쳐서 떨어뜨리고 뜰의 풀을 뽑아 버리고는 하였습니다.

지난 가을 달 밝은 밤 낭군님을 한번 보고 난 후 저는 마음 속으로 하늘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열 중 가장 못난 나에게도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날 어떤 인연이 있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발 사이로 낭군님을 훔쳐 보면서 낭군님을 섬길 인연을 헤아려 보았고 꿈 속에서 만나 만날 수 없는 사랑을 이어 보기도 하였답니다. 비록 한번도 이불 속의 즐거움을 누려 보지는 못했지만 낭군님의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려 배꽃을 떨구며 우는 두견새나 오동잎에 떨어지는 한밤의 빗소리를 차마 듣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어 뜰에 나오는 여린 풀잎도 가을이 되어 하늘을 나는 외기러기도 처량하여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병풍에 기대어 가슴을 치고 푸른 하늘을 불러 하소연할 뿐이었답니다. 낭군님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제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낭군님을 보기도 전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제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눈물은 먹물로 변하고 제 넋은 비단실 속에 맺혔습니다. 낭군님께서 부디 한번 제 그리움의 눈물을, 피어린 넋을 읽어 보아 주옵소서.

그날 저녁 말을 타고 먼저 돌아와 무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녀는 뾰로통한 얼굴로 벽을 보고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지요. 진사는 하루 종일 울었는지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넋이 나가 있었지요. 제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왼손에 차고 있던 옥이 수놓인 금팔찌를 풀어 진사의 품속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께서 귀한 몸을 굽혀 이같이 더러운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니 어찌하오리까. 어리석으나 저 또한 목석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낭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갈길이 바빠 일어나는데 저도 진사도 흐르는 눈물이 비와 같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진사의 귀에다 대고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서궁에 있습니다. 오늘 밤 서쪽 담장을 넘어 들어오시면 인연의 끈을 이을 수 있을 거예요."

무녀의 집을 떠나 서둘러 궁으로 들어가니 다른 궁녀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눈웃음을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밝히고 앉아 자란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오늘 저녁 진사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했단다. 오늘 오지 못하더라도 아마 내일은 반드시 담을 넘어들어오실 거야. 오시면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수놓은 휘장이 겹겹이 둘러져 있고 비단 방석이 포근히 놓여 있고 술과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안 오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시기만 한다면 대접하기가 뭐 그리 어렵겠니?"

자란의 걱정대로 그날 밤에는 진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담장 아래 왔다가 담장이 너무 높고 험해 넘지를 못했더랍니다. 실망이 너무 커서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못하고 힘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진사의 집에는 아주 꾀가 많은 특이라는 젊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특이 진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찬 것을 보고는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사께서는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사는 특이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워 특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고는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특은 곧바로 사다리를 하나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사다리는 아주 가볍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특은 사다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다리를 가지고 궁궐 담을 넘어간 후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 두었다가 돌아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특이 담을 넘는 시범을 보이고 진사도 연습을 해보았지요. 그날 밤 궁궐로 떠나려고 할 때 특이 또 품 속에서 털옷과 가죽 버선을 꺼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넘어가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진사는 특의 도움으로 다음 날 손쉽게 담장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 몸을 낮춰 숲 속에 엎드리니 달빛은 낮처럼 환했고 궁 안은 적막하도록 조용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작은 소리로 시를 읊조리며 산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사는 조심스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사를 발견하고는 어서 나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자란이었지요. 제 부탁으로 거기 나가 진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 사람이 흥취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만사를 무릅쓰고 감히 넘어들었으니 낭자께서는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사님이 오시기를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렸어요. 이제야 요행히 이렇게 뵙게 되니 죽을 목숨이 살아난 듯 기쁘옵니다. 저는 자란이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오세요."

저는 그때 창문을 열어 놓고는 등불을 밝히고 금화로에는 향을 피우고는 이야기책 한 권을 펼쳐 놓고 읽으면서 진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눈만 따라가며 건성건성 읽었을 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마침 층계를 올라와 굽은 난간을 거쳐 걸어오는 진사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절로 인사와 답례를 하고 손님과 주인처럼 동서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자란은 곧 준비해 두었던 진수성찬과 좋은 술을 내왔지요. 자란도 함께 앉아 술잔을 나눴지요. 석 잔을 마신 후 저는 취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참으로 길지요."

말뜻을 알아들은 자란은 곧 문가에 둘러쳐진 휘장을 드리운 후 문을 닫아 주고는 나갔습니다. 등불을 끄고 우리는 곧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즐거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밤은 금세 새벽이 되었습니다. 닭들이 날 새기를 재촉하고 있을 때 진사는 일어나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날마다 어두울 때 담을 넘어와서 새벽에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나날이 사랑은 깊어지고 정은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자취가 남는 법, 눈이라도 온 날이라면 눈 위에 남는 발자국을 다 지우기는 어려웠겠지요. 진사의 출입을 알고 있는 궁녀들은 모두들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지요.

8. 특, 무서운 흉계를 꾸미다

어느 날 진사는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운영과 만나는 좋은 일에 사나운 바람이 몰아칠까봐 두려워서 걱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특이 밖에서 돌아와 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번 일에 제 공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내가 마음 속에 잘 새겨 두고 있으니 걱정 마라. 조만간 후한 상을 줄 것이다."

"진사님의 얼굴빛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까닭이옵니까?"

"보지 못할 때에는 병이 마음속 뼛속에 사무쳤었지만 보고 나니 헤아릴 수 없는 죄가 머리 속에 쌓이는데 근심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왜 남몰래 업고 도망치지 않으십니까?"

진사는 특의 말을 듣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날 밤 특의 꾀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이란 하인은 본래 머리가 비상해 꾀가 많은 놈인데 그대 생각에는 그의 계교가 어떻소?"

"전 진사님의 생각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제가 궁궐에 들어올 때 주신 옷과 보물들이 적지 않고 또 대군께서 내려주신 것도 많은데 그 물건들을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말 열 필이 있더라도 다 옮기기 어려울 텐데."

진사는 다시 집에 돌아와 특과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특의 얼굴에는 크게 기뻐하는 표정이 그려졌습니다.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얼른 방법을 말해 보아라."

"제 친구들 중에 힘깨나 쓰는 장사가 스무 명쯤 있는데 힘으로는 그들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저하고는 우정이 깊어 제 말이라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니 그들에게 옮기게 한다면 태산인들 어렵겠습니까?"

진사가 그 말을 전하길래 저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짐을 싸서 이레 만에 진사의 집으로 다 옮겼습니다. 운반이 끝나자 특이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보물을 이곳에 쌓아 두면 큰마님께서 의심하실 것이고 저의 집에 쌓아 두더라도 이웃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른 방도가 없다면 어디 산 속에 구덩이를 파고 깊이 묻어 두고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나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나와 너는 도적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테니 조심해서 잘 지키도록 해라."

"이미 보셨다시피 제 계교는 누구도 따를 수 없고 친구들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긴 칼을 들고 밤낮으로 지킬 것이니 눈은 빼갈 수 있어도 보물은 뺏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특이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보물을 얻은 후에 저와 진사를 산골로 끌고 들어가서 진사를 죽인 후에 저를 차지하려는 흉계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진사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선비라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대군은 전에 비해당을 세우고 나서 좋은 싯구를 얻어 현판[9]에 새겨 걸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문사들이 시를 짓고 갔지만 마음에 드는 시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진사를 억지로 잔치에 초청해 놓고는 시를 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진사는 간청에 못 이겨 붓을 휘둘렀습니다. 잠깐 사이 비해당의 모습과 주변의 경치가 한눈에 그려졌습니다.

"뜻밖에 오늘 다시 신선을 만나게 되었구나!"

거듭 감탄하며 몇 번인가 조용히 시를 읊어 보는데 자꾸 의심스러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장암정풍류곡'[10]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사가 갑자기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취해서 글씨를 살필 수 없을 정도이니 물러가 쉬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대군은 뜻을 물어보려다가 할 수 없이 늙은 하인에게 부축하게 해 내보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 진사가 들어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좋겠소. 어제 지은 시를 대군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일을 당할까봐 두렵소."

"지난 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꿈에 얼굴이 흉악한 사람이 나타나 '내가 성 밑에서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놀라서 깨어났어요. 무슨 징조인가 생각해 보옵소서."

"꿈은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소."

"그 흉악한 얼굴이 특과 닮았던 것 같은데, 혹시 성은 궁궐의 담장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낭군께서는 그 하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지요?"

"그놈은 본래 미련하고 음흉한 놈이지만 전에 나에게 충성을 다했소. 그대와 좋은 인연을 맺는 데도 그놈 덕이 컸소. 처음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배신하는 짓은 하지 않겠지요."

낭군님의 뜻대로 따르겠어요. 그러나 자매 같은 자란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자란을 불러 계획을 말하였지요. 그랬더니 자란이 깜짝 놀라 화를 내며 붙잡고 말렸습니다.

"오랫동안 즐겁게 지냈는데 왜 화를 재촉하느냐?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다가 이렇게 여러 달 사귀었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담을 넘어 도망하려 하다니, 그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대군께서 오랫동안 기울이신 정성이나 대군부인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느냐? 네가 도망치면 그 화가 네 부모에게 미칠 것이고 서궁의 우리들에게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건 생각해 보았느냐? 또 세상이란 한 그물 속에 있는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도망간들 어디로 가겠느냐?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그 화가 너 한 몸에 그치겠느냐? 꿈자리가 사나운 것은 접어 두더라도 꿈이 좋았다고 해서 마음 편히 갈 수 있었겠느냐? 운영아, 내 생각에는 마음을 굽히고 평안히 정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좋겠다. 네 얼굴이 좀 피곤하고 쇠약해지면 대군의 사랑도 식을 것이니 상황을 봐서 병이 심하다고 말하고 누워 있으면 머잖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때 진사님과 함께 손잡고 돌아가서 백년해로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계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니? 네가 그런 계교를 쓴다면 잠시 사람을 속일 수야 있겠지만 하늘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9) 글이나 그림을 새겨 문 위에 다는 나무 판.

10) '담장을 따라가며 몰래 풍류의 곡조를 훔쳤네."라는 뜻으로 진사가 운영을 몰래 만나는 것을 비유한 것.

옆에서 듣고 있던 진사는 일이 틀린 것으로 짐작하고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치며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갔지요.

하루는 대군께서 서궁에 앉아 계시다가 철쭉이 만발할 것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들의 시를 하나하나 읽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게도 너희들의 시는 나날이 좋아지는구나. 그런데 운영의 시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생각하는 뜻이 뚜렷하구나. 전에 지은 시에서도 그런 자취가 보이더니, 도대체 네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번 김진사의 시에도 의심스러운 구절이 있었는데 너 혹시 김진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바로 뜰에 내려가 머리를 땅에 대고 울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번 대군께서 한번 의심하신 후 바로 죽고자 했으나 아직 나이 서른이 못되었고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죽으면 그 불효가 저승에서도 한이 되는 것이기에 부끄럽게도 목숨을 이었다가 또다시 이런 의심을 얻었으니 이제 어찌 살기를 바라겠나이까? 우리 다섯 궁녀 잠시라도 서로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닦았는데 저만 홀로 이렇게 더러운 이름을 얻었으니 이제 살아도 죽는 것보다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고는 달려가 비단 수건으로 서궁 난간에 목을 매었습니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하는 사이 자란이 급히 대군께 나아가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저처럼 죄없는 시녀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니 이제부터 저희들은 다시는 붓을 들어 시를 짓지 아니하겠사옵니다."

대군은 저나 자란의 태도에 크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란에게 빨리 가서 저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고는 오히려 우리에게 비단 다섯 필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시를 가장 잘 짓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비단으로 상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지요. 그 후로 진사는 다시는 서궁에 출입하질 못했습니다. 진사는 문을 걸어 닫고 병으로 드러누웠지요.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다 날마다 눈물로 이불과 베개를 적시니 목숨은 실오라기와 같았지요. 특이 와서 보고는 다시 진사를 부추겼습니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아녀자처럼 상사병을 참고 계십니까? 그렇게 계시다가는 몸만 축나기 십상입니다. 이제 제가 이른 계교를 쓰실 때입니다. 깊은 밤에 담을 넘어들어가 솜으로 입을 막고 업고 뛰쳐나오면 누가 저를 감히 쫓을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운영에게 물어보기로 하자."

진사는 그날 밤 다시 들어오셨지요. 그러나 저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 대신 자란이 진사를 맞고 술을 권했지요. 저는 그 전에 써둔 편지를 전해 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사님과의 인연과 백년가약은 오늘 밤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저승에서라도 찾게 되겠지요."

편지를 받아든 진사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흘리며 나가더이다. 저는 따라 나가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썼고 자란은 그런 모습을 처량해하며 기둥 뒤에 기대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집사는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박명한 운영이 큰절을 올리며 낭군님께 아뢰옵니다. 아무런 자질도 없는 제가 불행히도 낭군님의 눈에 들어 서로 생각하기를 여러 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를 몇 번이나 하다가 다행히 서로 만나 몇 날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같이 깊은 정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릇 좋은 일에는 하늘의 시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이 모두 알고 대군이 의심하고 계시니 이제 화가 들이닥쳐 살 날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바라는 것은 낭군님께서 저와 작별한 이후 저를 가슴에 두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힘써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리시어 부모님을 복되게 하는 것이옵니다. 제 의복과 보물은 다 팔아서 부처님께 바치고 정성껏 기도하셔서 낭군님과 다하지 못한 인연을 다음 세상에서나 다시 잇게 하여 주옵소서.

진사는 미처 다 읽기도 전에 기절하여 땅에 넘어졌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침을 찌르고 약을 먹여 겨우 다시 깨어났지요. 그때 특이 밖에서 들어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궁녀가 무슨 대답을 하였기에 이렇게 죽으려고 하십니까?"

진사는 다른 말을 하지 안고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보물은 잘 지키고 있느냐? 내 그걸 팔아 부처님께 바쳐서 굳은 약속을 실천하리라."

그 말을 들은 특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궁녀가 안 나온다면 보물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군.'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 속을 알 까닭이 없었겠지요.

9. 드러나는 비밀, 그리고 운영의 자결

하루는 특이 스스로 자기 옷을 찢고 코를 때려 피가 흐르게 하고 머리는 귀신처럼 흩뜨리고는 맨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엎어지듯 엎드려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 마디를 전하고 특은 기절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아넘어간 진사는 특이 죽으면 보물을 찾지 못할까봐 근심이 되어 손수 약을 달여 먹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나중에는 술에다 고기까지 갖다주며 마음을 달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외로이 홀로 산 속에서 보물을 지키고 있는데 도적떼들이 습격해 왔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 싸워보지도 못하고 겨우 도망쳐 실오라기와 같은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물이 아니었더라면 제게 이런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보물을 지키지 못한 죄가 크옵니다. 어서 죽여 주시옵소서."

특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진사는 속은 부글부글 끓었으나 부모님이 들을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해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진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진사는 하인 십여 명을 거느리고 특의 집에 들이닥쳐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찾아낸 것은 금팔찌 한 쌍과 거울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사는 그것을 증거물로 삼아 관가에 고소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운영과의 일이 탄로날까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을 죽이려고도 해봤으나 힘으로 특을 당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속만 썩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특이 자기 죄를 알고 속으로 무서웠던지 서궁 밖에 사는 맹인 점쟁이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내 일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옆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 나오길래 도둑으로 생각하고 소리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놈이 엉겁결에 물건을 버리고 달아나길래 주워 감춰두고 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우리 주인이 내 방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내가 물건을 주워 왔다는 말을 듣고 보여달라고 해 팔찌와 거울을 보여주었더니 그걸 빼앗고도 성이 차지 않아 더 내놓으라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달아나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겠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특을 보고 물었습니다.

"대체 너희 주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인을 그렇게 학대한단 말이냐?"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재주로 보아 머잖아 과거에 급제할

것이오. 그러나 저렇게 탐욕스러우니 어떤 관리가 될지 알 만하지요.”
이 말이 입에서 입을 건너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의 귀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대군은 분노하여 남궁 궁녀들에게 서궁을 뒤지라고 명령하였지요. 제 옷과 보물이 다 없어진 것을 알고 대군은 당장 서궁 궁녀 다섯을 뜰 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형틀을 갖추어 놓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지요.
“이 다섯을 죽여 다른 궁녀들의 경계로 삼으리라. 집장![11] 너는 대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그때 우리 다섯 사람이 입을 모아 호소했지요.
“제발 한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사정을 다 말해 보아라.”
우리는 글로 지어 올리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대군도 마음이 좀 풀어져 허락을 해 주셨지요. 은섬이 제일 먼저 감춰둔 사연을 지어 올렸습니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거나 천하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게 되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고 달을 봐도 넋을 잃어 매화나무에 꾀꼬리가 앉으면 짝을 짓지 못하게 쫓았고 처마 끝을 드나드는 제비도 집을 짓지 못하게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다 제 마음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질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한 것이니 이 어찌 서글픈 일이 아니리까? 한번이라도 궁궐 담장을 넘어가면 인간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오래도록 궁궐 속에 갇혀 한번도 궁궐 밖을 나가보지 못했사옵니다. 이는 참으로 참기 힘든 일이오나 대군의 위엄이 두려워 불같은 마음을 억누른 채 시들어 죽어갈 뿐이옵니다. 궁궐의 법도를 벗어난 죄를 지은 일이 없사온데도 저희를 죽이고자 하시니 참으로 원통할 뿐이옵니다. 저희들은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눈을 감을 수 없겠나이다.

다음에는 비취가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대군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온데 어찌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으리까? 저희들은 대군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깊은 궁궐에 살며 달밝은 가을이나 꽃피는 봄날에도 변함없는 뜻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을 따름이온데 이제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쓰고 말았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이제 살아도 죽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바라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자란이 목숨을 건 하소연을 지어 올렸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겨 두리이까? 하늘나라의 선녀도 아니온데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희들이라고 없을 수 있겠사옵니까? 옛날의 성스러운 임금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다 여인을 그리워하였고 대군께서도 운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온데 어찌 운영이라고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자를 안아 보고 싶은 정욕이 없을 수 있사오리이까? 김진사는 참으로 단정한 선비지요. 그런데 그런 김진사를 서궁 깊은 곳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하신 일이고 운영에게 명하여 벼루를 갈게 한 것도 대군이었나이다.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 달밝은 가을, 꽃피는 봄이면 늘 마음이 아프던 운영이, 밤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애를 끓이던 운영이 준수하고 단아한 진사를 보고 목석처럼 그냥 앉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셨나이까? 한번 보고는 넋을 잃고 그리움의 병이 뼛속에 사무쳐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게 되었사옵니다. 불쌍한 운영이 아침 이슬처럼 일순간 죽어버리면 대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이 있어 돌보려고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대군께서 김진사를 불러 운영과 한번 만나게 해 주신다면, 그리하여 운영의 한을 풀어 주신다면 대군의 선행은 하늘에 닿을 것이며 저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옵니다. 운영이 절개를 지키지 않은 죄는 운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부추긴 저에게 있사옵니다. 저의 죄가 적지 않으니 저는 오늘 죽어도 영광이옵니다. 다만 대군께 바라고 또 바라옵나니 저의 죽음으로 운영의 목숨을 살려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옥녀가 올렸습니다.

그동안 서궁의 행복과 즐거움을 저도 함께 하였사온데 서궁이 당한 불행을 어찌 저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삶도 죽음도 같이 하기로 약속했사오니 죽어도 아무런 유감이 없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대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사온데 대군을 향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고 서궁의 죄없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제가 어찌 얼굴을 들고 살기를 바라겠나이까? 대군의 은혜로 만에 하나 죽음을 면하게 되더라도 저는 자결하여 대군의 처분을 기다리겠사옵니다.

대군은 읽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자란의 글을 보셨지요. 그러고 나서는 화가 퍽 누그러지신 듯했지요. 그 사이 소옥이 꿇어앉아 눈물을 지으면서 다시 호소했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저는 소격서동으로 가지 말자고 했사옵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너무도 간절히 부탁을 하였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깝게 여겨 남궁 사람들을 부추겨 따라간 것이옵니다. 운영의 죄는 운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사오니 저를 죽이시고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시옵소서.”
궁녀들의 한결같은 뜻과 눈물을 보시고 대군께서는 노여움이 많이 풀어져서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내고 저는 따로 별당에 가두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뜻대로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고 말았습니다.

10. 김진사, 운영을 따라가다

운영은 옛일을 조용히 회상하며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김진사는 곁에서 붓을 들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운영의 이야기가 자신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슬픔을 참지 못하는 듯 서로 마주보며 눈가에 이슬을 보여주었다. 한참을 그런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다가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낭군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김진사는 그 말을 받아 사연을 이어갔다.

운영이 자결한 후 궁 안 사람들은 모두 마치 부모가 돌아간 것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궁 바깥에까지 들린 울음소리 때문에 저도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기절하여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초상 치를 준비를 하면서도 집안 사람들이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정성껏 주무르고 하는 바람에 해질 무렵 겨우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모든 일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영

11) 執杖. 곤장을 잡고 때리는 일을 맡은 사람.

혼을 위로해 주기 위해 금팔찌와 거울, 그리고 붓도 벼루도 팔아 쌀 마흔 석을 마련하고는 것을 청녕사에 보내 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다시 특을 불렀습니다.

"내 너의 지난 날 지은 죄를 다 용서해줄 테니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느냐?"

특은 엎드려 짐짓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성품이 모질기는 하지만 저도 사람이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뽑으며 헤아려도 다 헤아리기 어려울 터인데 이처럼 용서해 주시니 이것은 고목에 잎이 나고 백골에 새살이 붙는 것과 같사옵니다. 앞으로 진사님을 위해 이 한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좋다. 이제 너를 믿겠다. 이제 내가 운영을 위하여 부처님께 정성을 드려 운영의 혼이 좋은 세상에 가도록 재를 올리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네가 가보지 않겠느냐?"

"예, 정성을 다하여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시원스레 대답을 하고는 쌀을 싣고 절로 올라갔는데 도착해서는 시주를 할 생각은 전혀 않고 드러누워 사흘 동안 궁둥이만 두들기며 놀다가는 느지막이 중을 불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쌀 마흔 석을 다 어디다 쓰겠소. 다 부처님께 바칠 필요가 있겠소? 우선 술과 고기를 장만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먹이는 것이 좋겠소. 그게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소?"

그러고는 술을 받아다 놓고 지나가던 마을 여인을 강제로 끌어들여 중들 방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 날을 함께 자면서 재를 올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랍니다. 중들이 다 뒤에서 분통을 터뜨리다가 재를 올리기로 작정한 날이 되자 특을 보고 말했답니다.

"불공을 드리는 일에는 시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주가 이처럼 불결하면 불공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 저 맑은 시내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예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특은 마지못해 나가더니 슬쩍 물을 끼얹고는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서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빌었답니다.

"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내일 다시 살아나 특의 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흘 동안 부처님 앞에 비는 말이 오직 이것 하나뿐이었답니다. 그런데도 특은 돌아와 저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영 아씨는 반드시 살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재를 올리던 그날 밤 운영 아씨가 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정성껏 빌어 주니 고마운 마음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물어 보니 중들의 꿈도 저하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지요.

마침 계수나무가 누렇게 익는 계절[12]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과거를 볼 뜻은 없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읽으려고 청녕사에 올라가서 여러 날을 묵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중들로부터 특이 한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졌지만 특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특의 문제는 절을 내려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몸을 깨끗이 씻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향을 사르고 이마를 대어 절을 하며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운영와 죽기 전에 한 약속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어 하인 특을 시켜 정성껏 부처님 앞에 재를 올려 명복을 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보니 특이 말할 수 없이 사악한 짓을 저질렀고 운영의 유언 또한 헛되이 사라지게 했으니 제가 무슨 얼굴로 부처님 앞에 소원을 빌리이까? 그러나 바라옵건대 운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불쌍한 사람과 짝을 짓게 하시어 다음 생에 가서는 이런 원통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건대 저 악독한 특을 데려가 지옥에 가두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이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운영은 비구니가 되어 열 손가락을 불살라 12층의 금탑을 지을 것이며 저는 비구승이 되어 불법을 닦고 닦아 큰 절을 지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사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빌고 빌며 절을 하고 또 하여 마침내 천 번을 채우고서야 빌기를 마쳤습니다. 특을 처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 특은 이미 우물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따져보니 제가 부처님께 빌기를 시작한 지 이레 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세상 일에 뜻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조용한 곳에 누워 나흘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마침내 깊은 탄식을 토하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답니다.

11. 유영, 슬픈 사랑의 책을 품고 속세를 버리다

말을 마치고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슬프게 울었다. 그 울음은 새벽 바람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소원을 이룬 것인데, 원수인 하인도 이미 없어졌으니 원통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그다지 슬퍼하오? 다시 인간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 그러는가?"

김진사가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은 다 원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저승의 염라대왕이 죄없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승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나은데 천상의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슬퍼한 것은 대군께서 돌아가시자 궁궐은 주인을 잃어 쓸쓸한데 까마귀와 새들만 슬피 울어 쓸쓸함을 더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을 겪은 이후로는 빛나던 집은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은 깨어지고 하늘을 찌르던 담장은 무너져 버리고, 다만 섬돌 위에 피어오른 꽃만 향기롭고 무성히 풀 덮인 뜨락만 봄빛을 자랑하고 있으니, 변하기 쉬운 것이 인생사라, 다시 옛일을 돌이키자니 슬픔이 치밀어 올라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원래 하늘나라의 사람들인가요?"

"우리 두 사람은 본래 하늘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상제께서 저에게 천도[13]를 따오라고 시키셨는데 저는 시킨 것보다 더 많이 따가지고 와서 운영과 나눠 먹다가 들켜 인간 세상에 쫓겨 온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한 차례 겪고 나니 이제 옥황상제께서 잘못을 용서하셔서 다시 상제의 궁궐인 삼청궁에 올라가 상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돌아가는 일이라 잠시 바람의 수레를 타고 옛날 놀던 곳을 들러 보았을 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운영의 손을 잡고는 다시 유영에게 부탁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도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원한을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존군[14]과 서로 만나 이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부디 존군께서는 이 글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셔서 영원히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하여 운영의 어깨에 어깨를 기대고 시 한 수를 읊었다.

---

12) 과거를 볼 시절. 보통 과거 시험을 계수나무꽃이 누렇게 물드는 음력 7월 경에 치른 데서 비롯함

13) 天桃. 삼천 년 만에 한번씩 열리는 복숭아로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천상의 과일.

14) 尊君. '존귀한 당신'이라는 뜻으로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

2학년 반 번 성명

꽃 떨어진 공중에는 제비 참새가 날고
봄빛은 예와 같은데 주인은 간 곳 없구나
하늘 높이 솟은 달은 차기만 한데
푸른 이슬은 아직 옷을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그것을 받아서 이어 읊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머금어
천 년 만 년 우리 사람 꿈마다 찾아드네
오늘 저녁 여기와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 수건을 적시네

시를 읊는 것을 들으며 유영도 술에 취하여 깜박 잠이 들었다가 문득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안개는 땅 위에 자욱하고 새벽 빛은 멀리 어렴풋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김진사가 기록한 책만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다시는 두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 부탁받은 대로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 후 장롱 속에 책을 감춰 두고 때때로 꺼내 읽어 보다가는 망연자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는 했다. 그 뒤로는 집을 떠나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자취를 알 길이 없다. <끝>